

교민들, 1·2차전 보려면 3700km·60시간 버스투어

(러시아·알제리전)



김학범 월드컵 에세이

| 브라질월드컵은 거리와의 전쟁

서울~부산 다섯번 가까이 왕복하는 셈
숙박 장소보다 5배...비행기는 연감생심
치안 불안정...현지 경찰 에스코트 계획
교민 5000여명 한국팀 전경기 단체응원

브라질은 땅덩어리가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나라다. 이번 월드컵은 이동거리와의 싸움이 자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기후와의 전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한국대표팀은 32개 출전국 중 이동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데도 베이스캠프에서 3군데 경기장을 오가는데 5000km 가까이 왕복해야 한다.

그러나 대표팀 응원을 준비 중인 현지 교민들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약파다. 한국 교민들은 대부분 상파울루의 봉헤쾨르 또는 브라스 지역에 모여 산다. 우리나라로 치면 동대문, 남대문쪽 되는 곳이다. 한국인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한국인 밀집도로 따지면 아마 전 세계 최고일 것이다.

작년 브라질을 방문했을 때 상파울루 교민 체육회 사람을 만났다. 한국 경기마다 약 5000장을 교민 몫으로 예약할 계획이라고 한다. 브라질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이 약 5만 명(외교통상부 홈페이지 기준)이고, 90% 이상 상파울루에 산다는 점을 감안하면 브라질 전체 한국 교민의 10분의1이 대표팀 응원을 계획하는 셈이다.

대표팀은 대회 기간 내내 전세기를 타지만 교민들은 다르다. 비행기는 연감생심이다. 벌써부터 브라질 국내선 티켓을 예약하려면 평소 가격에 '0'을 하나 얹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10배가 올랐다는 뜻이다. 숙박은 5배가 뛰었다. 그나마 상파울루에서 출발하는 국내선 비행기도 하루에 몇 편 안 된다. 월드컵 기간 동안 증편할 거라고는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 비행기 티켓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는 게 중론이다. 브라질은 기차도 없다. 마을과 마을을 운행하는 전차만 간간히 있다. 이유가 있다. 브라질은 운송노조의 힘이 막강하다. 이들의 주 생계수단이 버스와 트럭이다. 정부나 국회에서 '기차'의 '기'자만 꺼내도 운송노조가 난리가 난다.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를 연결하는 기차만이라도 일단 건설하자는 주장이 얼마 전 나왔지만 운송노조의 반대로 역시 지지부진하다. 교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단 하나, 버스 밖에 없다. 교민들이 출발하게 될 상파울루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1차전이 벌어지는 쿠이아바까지 1000km가 넘는다. 버스로 쉼 없이 달려도 14시간이 걸린다. 브라질은 장거리 이동 버스가 많아 중간 중간



● 김학범 해설위원(전 성남일보 감독)은 브라질 축구 문화에 가장 박식한 축구인으로 꼽힌다. 김 위원은 1993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45일 동안 국제축구연맹(FIFA) 코치 스쿨에 참여하며 브라질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프로팀 코치, 감독 시절 외국인 선수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브라질을 직접 찾았고, K리그 비 시즌 때도 매해 번갈아 유럽과 남미 프로리그를 관전하며 축구 공부를 했다. 지난해에도 3개월 정도 남미축구를 둘러봤다. 김 위원은 브라질에서 직접 보고 느낀 문화를 중심으로 월드컵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에세이로 풀어낼 예정이다. 한국축구 최고의 전문가답게 월드컵 기간에는 날카로운 관전평도 전한다.

기사를 바꿔가며 여행을 계속한다. 중간에 밥도 먹고 쉬어가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20시간 가까이 된다. 왕복 2000km에 오가는 시간만 40시간이 넘는다. 상파울루와 한국과 알제리의 2차전이 열리는 포르투 알레그라는 850km 떨어져 있다. 버스로 10시간. 왕복 1700km에 20시간 이상 걸린다. 교민들은 1,2차전 두 경기를 보기 위해 3700km 넘게 이동해야 하고 버스 안에서 60시간을 보내야 한다. 서울에서 부산(편도 400km 기준)을 5번 가까이 왕복하는 셈이다. 브라질 고속도로는 한국처럼 잘 닦여져 있지도 않다. 상파울루만 벗어나도 강원도 가는 길처럼 가파르다. 자동차 전용도로도 아니다. 자전거, 오토바이는 흔하고 심지어 걷는 사람도 있다.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국처럼 때에 맞춰 중간 중간 주유소나 휴게소가 나타나지도 않는다. 브라질에 갔을 때 '조금 이따가 주유소 나오면 기름을 넣자'는 생각으로 고속도로에 올랐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

다. 몇 시간을 달려도 끝이 없는 사탕수수밭만 이어졌다. 결국 기름이 떨어져 중간에 차가 멈췄던 아찔한 기억이 난다.

가장 무서운 것은 역시 치안이다. 브라질에서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버스를 한 대 통째로 막아버리고 위협하는 일도 다반사다. 교민들이 현지 경찰에 에스코트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사실 얼마나 보호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민들은 이런 고난을 뚫고 예상하면서도 벌써부터 차근차근 응원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우리 대표팀 경기를 보기 위해 산 넘고 물을 건너는 것은 물론 과장을 조금 보태면 목숨까지 걸 각오다.

월드컵이 100일 남았다. 대표팀 선수들의 부상 소식이 자꾸 들려와 걱정이다. 다친 선수들 본인이 누구보다 속상할 거고, 이를 지켜보는 흥명보 감독의 심정이 가장 답답할 것이다. 축구에서 부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몸과 몸이 격렬하게 부딪히는 특성상 부상

은 축구의 일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이제는 다시 한 번 정신을 가다듬어야 한다. 100일의 하루하루가 다 월드컵 기간이라는 마음으로 좀 더 철저히 몸 관리를 할 때다.

남은 기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최종엔트리에 드는 것, 주전경쟁에서 이겨 그라운드를 밟는 것 또 조별리그에서 좋은 성적으로 16강에 오르는 것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과 다부진 정신력으로 후회 없이 최고의 경기를 보여주는 일이다. 이기고 지고는 그 다음 문제다. 이것이 목숨까지 걸고 대표팀을 응원하러 오는 교민들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 싶다.

스포츠동아 해설위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트위터@smss23

■ 축구대표팀 남은 3개월 준비는?

두 샤프트니에 코치, H조 전력분석 돌입 5월 28일 튀니지와 평가전·출전식

브라질월드컵 개막까지 남은 시간은 100일. 이 기간 동안 한국대표팀은 어떤 준비를 할까. 대표팀은 6일(한국시간) 그리스와 원정 평가전을 치른다. 이번 경기는 5월말 최종엔트리 발표 전 갖는 마지막 평가전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흥명보 감독이 선수들과 직접 소통하고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다. 남은 기간 변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코칭스태프의 행보가 바빠졌다. 전력분석을 위해 영입된 안톤 두 샤프트니에 코치가 공식 행보를 시작한다. 4일 러시아로 향했다. 5일 러시아와 아르메니아의 평가전을 관전하며 전력을 파악한다. 두 샤프트니에 코치는 러시아 프로축구 안지 마하치칼라에서 가스 히딩크 감독을 보필하며 코치로 활동한 바 있다. 러시아 선수들을 꿰뚫고 있어 정확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알제리와 벨기에 분석도 동시에 진행된다. 두 샤프트니에 코치가 추천한 복수의 네덜란드 출신 전력 분석관들이 6일 각각 알제리-슬로베니아, 벨기에-코트디부아르 경기를 챙긴다.

대표팀은 5월 최종 관문에 들어간다. 흥 감독은 대한축구협회와 브라질월드컵 일정을 최종 조율한다. 흥 감독은 3~5월까지 지속적으로 선수들을 점검한 뒤 30명의 예비명단을 추려 5월12일까지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출해야 한다. 5월28일 아프리카의 튀니지를 불러 브라질월드컵 출전식을 겸해 평가전을 치른다. 장소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이 유력하다. 대표팀은 5월29일 월드컵에 나설 23명의 최종명단을 발표하고, 다음날 1차 전후지인 미국 마이애미로 향한다. 기후가 온화하고 브라질과 시차가 맞아떨어져 훈련지로 낙점했다. 열흘 가량 훈련을 한 뒤 6월11일 경 베이스캠프인 브라질 이구아수에 입성할 예정이다.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



● 대표팀 일정(한국시간)

날짜	일정	장소	비고
3/6	그리스 평가전	아테네	엔트리 제출 전 마지막 평가전
5/12	30인 예비명단 제출	-	개막할 달 전 의무 제출
5/28	튀니지 평가전	서울W	
5/29	23인 최종명단 발표	미정	
5/30	마이애미 전후	미국	
6월초	이구아수 입성	이구아수(브)	
6/18	러시아(1차전)	쿠이아바	브라질월드컵 본선
6/23	알제리(2차전)	포르투알레그레	브라질월드컵 본선
6/27	벨기에(3차전)	상파울루	브라질월드컵 본선

새봄맞이 무료증정 이벤트!

고객분들께 여행용 1박스를 무료로 더 드립니다.

아직도 염색 때문에 고민하세요? 이제, 특허받은 기술로 뒷머리까지 3분이면 OK!

오디코디 황제수

한국인에게 최적화된 특허받은 건강 염색약

염색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들이나 빠른시간 내 셀프염색을 원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만족을 주는 제품입니다. 기존 염색약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개념 프리미엄 염색약으로 테스트에 참여한 소비자들로 부터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자극 천연 성분 제품 골라야

오디코디 황제수는 한국인의 모질과 두피환경 등을 고려하여 한국인의 모발에 최적화된 염모제입니다. 기존 염모제의 유해성과 단점을 보완하고 천연성분이 80%이상 들어있어 보다 안전한 뿐 아니라 샴푸타입으로 누구나 손쉽게 빠르게 염색할 수 있는 건강 염색약입니다.

오디코디 황제수

검색

- 1 황제수는 누르고 빗기만 하면 됩니다
샴푸 쓰듯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섞이는 올인원 스마트 염색
- 2 황제수는 3분이면 염색 끝
3분만에 염색 완성! 모발상태, 온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3 황제수는 저자극 샴푸형 제품입니다
7가지 천연 식물 성분으로 80% 저자극, 무임모나 샴푸형
- 4 황제수는 대용량으로 경제적입니다
구매했던 960g 용량으로 약 50회 사용(남성 기준), 1회 염색에 1780원

▶ 샴푸형 용기와 전용 빗으로 짜서 바르기만 하면 되는 편리한 염색 시스템 완성!



제조원: 광덕신약(주) www.hairdye.co.kr

상담 문의 1600-5676 ▶ 농협 356-0374-5688-03 문경에 우리은행 1005-002-137290 한가람



옷, 알리지, 피부트러블, 눈 따가움 걱정없이~
옷 타지 않는 **허브염색!**

옷타지 않는 허브염색! **더그린 허브**
절대 가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허브 염색 - '더그린 골드 허브' 소비자 사용 후 입증

최근 염색약의 유해성분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염색시장에도 성분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건강염색을 선호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출시한 프리미엄 염모제 '더그린 골드 허브'는 기존 염모제의 유해성과 단점을 보완하고 성분면에서 보다 안전 할 뿐 아니라 튼튼타입과 전용빗으로 누구나 손쉽게 빠르게 염색할 수 있는 건강염모제로 주목받으며 염색시장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화제다.

상담문의 : 1600-5676

A세트 20,000원 × 4팩 = 80,000원 **60,000원**
B세트 20,000원 × 4팩 = 80,000원 **96,000원**

옷 타지는 보은 반드시 본 제품을 주문하세요
부작용 시 100% 전액 환불

▲ 1박스 구성품

